

현장방문 64회… 전국 누비며 기업 살피는 ‘소통형 지휘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우문현답·기업 눈높이 정책 강조
법률구조공단과 中企 재기 업무협약
기술혁신 재기 기업인 7명과 간담회

‘취임후 현재까지 총 64회 현장 방문, 관용차 기준으로 8만1096km 이동…’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여정길이다.

현장과 떨어져 떨 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대표적인 지원기관 특성상 ‘소통형 지휘관’으로 연일 전국을 누비며 광폭행보를 이어가면서다.

이는 김학도 이사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달이 있다”는 말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김 이사장이 밟은 약 8만km의 거리는 관용차 이동거리만 계산한 것으로 비행기, KTX로 오고간 거리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길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간단하게 행사를 마치고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달려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목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김진수 이사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으로 현장서 첫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목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김진수 이사장과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중진공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의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기업인들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별도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2013년부터 재기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재도전을 돋고 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재기기업에게는 별도로 650억원의 기술혁신형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지원금액을 내년엔 더욱 늘릴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이후엔 경기 안양에 있

는 누리바이오로 발걸음을 옮겨 기술혁신분야 재기 중소기업인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성공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응원한다”면서 “중진공은 기술혁신형 재도전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진공은 올해 1000억원의 재창업자금을 통해 성실 실패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돋고 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재기기업에게는 별도로 650억원의 기술혁신형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지원금액을 내년엔 더욱 늘릴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사장께서 자주 강조하는 ‘우문현답’은 정책 지원 대상이자 고객인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시스템화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도록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올해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1조50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중진공의 정책 대상이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고 산업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재도전기업 등 계층별로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기관 수장의 광폭행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김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정책 집행 기관 입장에선 현장의 소리가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실제 중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상담, 신청 및 접수, 기업평가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전자약정 및 디지털창구 구축 ▲종이문서 전자문서화 ▲현장업무 모바일 지원 등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PL단체보험’ 中企 경영안전망 역할 톡톡

중기중앙회, 연평균 사고접수 600건 연간 보상금으로 평균 40억원 지급 89.3% ‘만족’, 불만족은 9.5% 불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에 가입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 건으로 집계됐고, 연간 평균 40억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가입 중소기업들은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내놓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3%가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요구’에 따라 가입했다는 곳도 11%에 달했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선 22.3%가 ‘매우만족’, 33.5%가 ‘다소 만족’하는 등 절반이 넘는 55.8%의 기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다소 불만족’은 6.1%, ‘매우 불만족’은 3.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4.7%였다.

또 PL단체보험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보험료 세부내역 설명부족(13.4%)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자체 지원에 대해선 68.6%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PL단체보험과 관련해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77.7%)’, ‘PL보험 가입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11.7%)’, ‘PL 관련 최신정보 수시 제공(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국내 최초로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

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싼 보험료로 같은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경기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은 많이 진행돼 왔는데, 이번 포천시의 지원은 기초지자체로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조사결과를 보면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 임직원들, 과수농가 일손돕기 봉사

기술보증기금 임직원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과수농가를 찾아 ‘감 따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급감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돋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보 직원들이 수확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감 따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장주 정성일·정

성만씨 형제는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기보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경상남도에선 가을 수확철에 약 1만 4000명의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이달 20일까지 범도민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을 수확철임에도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감 따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



기술보증기금 임직원들이 지난 10일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 진행한 ‘감 따기 농촌 봉사활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종·유사업종(품목) 기업들의 공동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 할 주관단체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 시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등과 함께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파견 사전·사

후 단계의 해외마케팅 활동까지 도와주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대면방식의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회는 물론 온라인 해외전시회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비, 장치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단계별 직접경비를 최대 7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